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2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교시

국어·헌법·경제학



◦ 응시번호 :
◦ 성명 :

시험시간 및 향후일정 안내

- ❖ 시험 시간 : 14:00 ~ 15:25
- ❖ 정답 가안 발표 : 2024. 4. 20.(토) 21:00
- ❖ 정답 이의 제기 : 2024. 4. 22.(월) 09:00 ~ 4. 24.(수) 17: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5. 17.(금), 국회채용시스템

국회사무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국 어

1. 파생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잠, 덮개, 굳세다, 덧나다
② 기쁨, 크기, 밀치다, 어린이
③ 멀리, 집칼, 결눈질, 좁히다
④ 웃음, 밝히다, 어둑다, 여닫이
⑤ 많이, 알짜, 돋보기, 철렁거리다

2. <보기>에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마르세이유, 밸런타인데이, 비전, 엠블런스, 엔도르핀,
윈도, 플루트, 코즈모폴리턴, 크리스찬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3.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올해 경제 성장율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밤이 되면서 구름양이 점점 많아져서 자정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③ 우리나라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④ 예전에는 잡지에 펜팔란이 있어서 외국인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⑤ 친구가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4. 어법에 맞는 문장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최근 주식이 하락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ㄴ.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니?
ㄷ.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ㄹ. 청소년에게 걸맞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ㅁ. 이 꽃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 ① ㄴ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ㄹ, ㅁ
⑤ ㄷ, ㄹ, ㅁ

5.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분야에 천착(穿鑿)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 깊이 파고들어 연구함
②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이가 더욱 소원(疎遠)해졌다.
→ 지내는 사이가 멀고 서먹서먹해짐
③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니 동료들이 백안시(白眼視)하였다.
→ 친밀하고 반가운 감정으로 대하는 눈매
④ 행복한 삶으로 가는 첩경(捷徑)은 마음가짐에 있다.
→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⑤ 직원들의 사기 진작(振作)을 위해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 펼쳐 일어나는 상황을 조성함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주에 갈 때 십여 호 친족이 같이 갔다가 난리 중에 소식도 못 듣고 왔는데,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친정 사람들 소식도 혹 오가는 편에 들을 수 있었다.

시인 이육사가 북경에서 총살당했다는 소문은 한심통박하였다. 아직 젊은 나이에, 또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조국 광복도 보지 못한 채. 그러나 조국 광복의 간절한 소망을 시로 남겼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내 손녀가 읽어 준 육사의 시에는 그가 바라는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올 것이라고 하얀 모시수건을 은쟁반에 준비 하라고 했다. 조국 광복을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지를 나는 안다.

해방 이듬해 시월에 이육사의 동생들인 원일, 원조, 원창 삼 형제가 내가 살고 있는 돛질에 들렀다. 묘사(墓祀)를 지내러 안동에 오는 길에 외사촌 누나인 날 보러 왔던 것이다. “우리는 국수 좋아하는데 국수 좀 해 주시려는가?” 그들 중 누가 그랬다.

“국수 좋아하면 더 좋지. 반찬 따로 안 해도 되고.”

대답해 놓고 밀가루 반죽해서 손으로 썰어 얼른 칼국수를 해 주었다. 한 그릇씩 먹고 더 먹는 걸 보고 어찌나 흐뭇했던지 모른다. 집 앞에 있는 정자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벽계(碧溪) 소리 좋다고 찬사가 대단했다.

“원일이 너 거기서 시 하나 지어라.” 했더니, 그렇잖아도 쓰려던 중이라 했다. 바위틈으로 졸졸 흐르는 도랑물이 큰 바위 석곽에 일단 고였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 석천(石泉)의 운치가 보통사람에게도 예사롭진 않았다.

육사 형제는 모두 여섯이다. 원기, 원삼, 원일, 원조, 원창, 원홍이다. 원삼이가 곧 육사인데, 아명은 원록이라고도 했다. 육사는 해방되기 얼마 전에 만주에서 돌아와 서울 들렀다 북경 갔다고 했다. 그 길로 붙잡혀 그 이듬해 사형당했다. 그가 바라던 청포 입은 손님도 맞이하지 못하고 마흔 살 나이에 아깝게 갔다.

원일이하고 남편하고는 동갑이라 집에 오면 늘 항렬 따지고 생일 따지며 서로 자기가 어른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고모(육사 어머니)가 안동으로 시집와 시어머니의 친정 질부가 된 때문에 양쪽으로 친척이라 항렬 따지기가 좀 복잡했다.

- 허은 구술,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에서 -

- ① 이육사는 서른아홉 살에 체포되었다.
- ② 이육사가 시를 지어 읊었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③ 이육사의 시에서 ‘청포 입은 손님’은 조국 광복을 의미한다.
- ④ 이육사의 어린 시절 이름은 ‘원록’이었다.
- ⑤ 이육사는 ‘나’의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다.

7. 인용 부호 속 문장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려 한다.”

이 문장은 ㉠‘만나다’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즉, ㉡‘동생’이 주체가 되는 경우 ‘어떤 사람이든지’는 대상으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지’가 주체가 되는 경우 ‘동생’은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이 문장에서 ‘어떤’은 부정칭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하다’는 문장의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8.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 우리가 먹는 배추가 100여 년 전의 요리책에 나오는 배추와 같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옛 문헌에 나오는 ‘배추’와 오늘날의 배추가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조선시대 배추 김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만약 비슷하게 복원했더라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까지 이 음식에 담을 수 있을까? 음식의 역사를 다루면서 어떤 문헌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식으로 단순 나열만 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야만 그 음식의 역사에 다가갈 수 있다. 음식의 역사는 결코 에피소드 모듬이 아니다. 그 속에는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있다. (중략)

음식의 역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음식의 역사만큼 거시사와 미시사를 아우르는 것도 없다. 사람은 잘났건 못났건 누구나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활동도 정치활동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개인이나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알면 그 사회의 역사가 보인다.

- ① ‘배추’와 ‘배추김치’는 음식의 역사 기술과 관련된 예시로서 언급되었고, 냉면, 잡채, 빈대떡 등 여러 예시로 확장될 수 있다.
- ② 음식에 관한 문헌학적 고증만으로는 음식의 역사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을 살피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③ 식사라는 개인의 사적인 행위는 그가 속한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 ④ 음식의 역사가 에피소드 모듬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 음식이 등장하는 사회적 기반과 경제적 여건 등을 통찰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 ⑤ 음식이라는 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부터 한 개인이 속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추론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이 지니는 추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0세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영양의 과소비가 일어나면서 고도 비만이 문제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발육 상태가 좋아지고 영양분의 섭취는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씬함의 기준은 오히려 살과 뼈가 만나는 수준의 깡마른 체형으로 역주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지나친 다이어트의 한 극단인 ‘신경성 식욕 부진증’, 즉 ‘거식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10대 전후에서 시작해서 20대에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인구의 4% 정도까지 이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흥미롭게도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직접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칼로리 소모를 위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음식물의 칼로리나 영양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는 똥똥하다.’라고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거울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자신은 아직 똥똥하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긴다. 깡말랐음에도 불구하고 1~2kg만 늘면 무척 불편해하고, 쓸데없는 살덩이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힘들어한다. 주변에서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특히 부모들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의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 ①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는 스스로 식욕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②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걸리면 건강 악화로 생명을 잃을 확률이 4% 정도이다.
- ③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는 영양분의 섭취뿐만 아니라 음식 냄새조차 맡기를 거부한다.
- ④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영양분과 칼로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병한다.
- ⑤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의 문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10. (가)~(마)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가) 앙리 르페브르가 묘사한 현대사회의 모습, 즉 일상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덧없음을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생산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허감을 느끼고, 뭔가 지속적인 것, 영원한 것, 균형 잡힌 것을 갈구하며,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사람들을 견고하게 떠받쳐 주었던 양식(style)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르페브르는 말한다. 그는 현대성(modernité), 즉 일상성(quotidienneté)의 제일 첫 번째의 특징으로 양식의 부재를 들었다.

(나) 행동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상성은 양식을 완전히 추방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에 대한 그리움은 한층 더 진하여, 그것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다. 우리의 추석 명절, 차례 풍습을 생각해 보자. 제기와 의복을 고루 갖춘 명문 선비의 차례의식을 TV화면이 비추는 것은 이 양식에 대한 현대인의 강한 노스탤지어의 표현이다. (중략) 양식은 하찮은 물건, 하찮은 행위, 무의미한 제스처 하나하나에까지 의미를 부여한다.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양식에 의거해서 행동했다.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줄 양식이 사라진 오늘날, 사람들이 공허감, 권태,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 양식이란 무엇인가? 우선 예술분야에서 말해 본다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소재와 형태를 다루는 특징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방법을 뜻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그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그 시대의 어떤 미학적 전형을 이룬다. 어떤 미술 유파의 양식이라든가, 또는 영국 양식의 가구라든가 하는 말이 그것이다.

(라) 그러나 양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것에 대한 향수는 한층 더 짙어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양식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그에 대한 약착같은 추구로 특징지어진다고 르페브르는 말한다. 1960년대의 프랑스를 묘사한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의 우리나라와 너무도 비슷하다. 19세기의 농민들이 마지못해 가졌을 시골 가구들이 현대 부르주아의 거실을 장식하고 있다고 르페브르가 말했듯이, 지금 서울의 상류층 가정들은 시골 행랑채에나 있었을 투박한 원목가구를 거실의 가장 중심부에 두고 애지중지하고 있다. 골동품이나 옛 양식의 가구에 대한 취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여가선용이나 고가품에 대한 취미가 아니라 양식에 대한 노스탤지어, 그리고 일상과의 단절이라는 염원을 담고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마)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행동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생활양식이니 행동양식이니 하는 말들이 그것이다. 옛날에는 농부의 옷장에도 양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비싼 가구에도 양식이 없다. 형태, 기능, 구조의 어떤 통일성이 양식을 형성하는 것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들이 분리되거나 마구 뒤섞였다. 대중사회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양식의 종말을 고한다. 대중의 수용에 부응하는 대량생산은 기능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① (가) - (다) - (라) - (마) - (나)
- ② (가) - (다) - (마) - (라) - (나)
- ③ (다) - (나) - (가) - (라) - (마)
- ④ (다) - (마) - (가) - (라) - (나)
- ⑤ (다) - (마) - (라) - (가) - (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1. ~ 문 12.]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계절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한 작물과 품종이 재배되는 윤작(輪作)과 복작(複作)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점차 한 지역에 대단위로 1년에 한 작물만을 재배하는 단작(單作)이 증대되어 왔다. 단작은 김매기, 파종, 수확 등의 기계화가 용이하고 병충해 방제, 잡초 방제 등 생산 기술의 전문화(專門化)를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 투입은 줄이고 기술의 투입은 극대화하는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단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한편 품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각 지역에 오랫동안 잘 적응해 온 토착 품종들은 사라지고 유전적으로 개량된 소수의 품종들이 들판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단지 6개 품종이 옥수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농업의 단작화와 품종의 단순화는 농경지 생태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생태계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병, 해충, 기후 변화, 환경 변화 등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매우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벼농사 경험이 그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에 통일벼를 육성하고 대대적인 보급을 하여 1976년에는 국민의 염원인 쌀의 자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978년에는 우리나라 논 전체의 70% 이상에서 통일계 품종이 재배되었다. 통일계 품종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논농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도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고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통일계 품종들이 점차 늘어나자 새로운 도열병 균계가 생겨나 통일계 품종의 저항성이 무너짐으로써 1973년에 전국적으로 이삭목도열병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1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물 재배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특정 재배 방식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대의 재배 방식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여러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2.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작’과 ‘단작’은 서로 대비되는 재배 방식에 해당한다.
- ② 토착 품종보다는 유전적으로 개량된 소수의 품종들이 현대 농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 ③ 농업의 단작화는 생태계의 불안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④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통일벼를 육성하여 쌀을 자급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통일계 품종들의 유전적 유사성이 커지면서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철저하게 적응하고 있는 각 종들은 유용한 과학 지식의 방대한 원천을 제공해 주는 진화의 걸작품이다. 오늘날 살아 있는 종들은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 정도 된 것들이다. 그들의 유전자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역경을 견뎌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운반하는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돕기 위해 극도로 복잡한 일련의 생화학적 장치들을 숨겨 있게 작동시킨다.

이것이 바로 야생종들이 인류가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유지를 도와주는 생성물들의 원천이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산물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약물에 관한 것들이다. 미국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의 40% 이상이 원래 식물, 동물, 곰팡이, 미생물 등에서 추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인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에서 만들어 낸 것인데, 살리실산은 다시 톱니꼬리조팝나무의 한 종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약으로 쓰일 수 있는 자연 생성물이 들어 있는지 검사된 것은 그 종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항생물질과 항말라리아제 발견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물질들은 질병 유기체가 약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함에 따라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포도상구균 박테리아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로서 다시 등장했고 폐렴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의학 연구자들은 앞으로 더욱 격렬해질 것이 분명한, 빠르게 진화하는 병원체들과의 군비 경쟁에 불잡혀 있다. 21세기 의학의 새로운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야생종들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야생종들의 유전자를 연구해야 한다.
- ② 유전자 자체의 진화보다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생화학적 장치들이 야생종들의 현존에 더 크게 기여했다.
- ③ 현재 살아남은 종들은 철저하게 환경에 적응한 결과물이므로 인간이 처한 환경 문제와는 무관하다.
- ④ 인간이 질병 유기체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항생물질과 항말라리아제 발견이 시급하다.
- ⑤ 의학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14.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의 짝이 아닌 것은?

- ① 굵신거리다 - 굵실거리다
- ② 꺼림직하다 - 꺼림칙하다
- ③ 남사스럽다 - 남우세스럽다
- ④ 두루뭇술하다 - 두리뭇실하다
- ⑤ 야무지다 - 야물딱지다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이 잘 될법하다.
- ② 오늘은 비가 올 듯도 하다.
- ③ 이 내용은 기억해둘 만하다.
- ④ 그녀는 새로 산 옷을 마음에 들어했다.
- ⑤ 폭우에 마을의 모든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

16.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선을 줄인다.
- ② 고무줄을 늘인다.
- ③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④ 매달 회비가 잘 걸힌다.
- ⑤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오너라.

1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이(順伊) 별레 우는 고풍(古風)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東海)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 장만영, 「달·포도(葡萄)·잎사귀」 -

- ① 돈호법의 수사가 확인된다.
- ②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달빛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직유법을 통해 달빛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는 가을밤에 동해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 ⑤ 시상 전개 of 주요 소재들이 작품의 제목이 된 작품이다.

18.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사례들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은 사이시옷과 관련된 조항이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때 뒷말의 첫소리가 거센소리이거나 된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 | ㉠ | ㉡ | ㉢ |
|---|------|------|-----|
| ① | 꺾병 | 잇몸 | 웃어른 |
| ② | 덧저고리 | 뒗마루 | 깃잎 |
| ③ | 돛자리 | 뒗머리 | 배깃잎 |
| ④ | 부싷돌 | 빃물 | 훗일 |
| ⑤ | 절댓값 | 도리깃열 | 가윗일 |

19. <보기>의 밑줄 친 단어 중 한자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그 사람은 생각이 매우 깊다.
 ㄴ.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ㄷ. 이제는 어차피 늦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ㄹ.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ㅁ. 사과를 수확하는 해의 기후 조건이 중요하다.
 ㅂ. 친구는 접시에 밥을 담고 카레 소스를 얹었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ㅂ
- ③ ㄴ, ㄷ, ㅁ
- ④ ㄴ, ㄷ, ㅂ
- ⑤ ㄷ, ㄹ, ㅁ

20. <보기>에 맞는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ㄱ. 받은 공문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또는 그 공문
 ㄴ.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ㄷ.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일
 ㄹ. 위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하는 것
 ㅁ.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ㅂ. 주로 공사나 용역 따위의 큰 규모의 거래에서 수요자가 물건이나 건축 공사 따위를 공급자에게 주문함

- ㄱ

ㄴ

ㄷ

ㄹ

ㅁ

ㅂ
- ① 이첩(移牒) 인준(認准) 비준(批准) 상신(上申) 경정(更正) 발주(發注)
 ② 이첩(移牒) 비준(批准) 인준(認准) 상신(上申) 경정(更正) 발주(發注)
 ③ 이첩(移牒) 비준(批准) 인준(認准) 계고(啓告) 갱정(更正) 수주(受注)
 ④ 통첩(通牒) 인준(認准) 비준(批准) 상신(上申) 경정(更正) 발주(發注)
 ⑤ 통첩(通牒) 인준(認准) 비준(批准) 계고(啓告) 갱정(更正) 수주(受注)

21.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창틀에 동그마니 올라앉은 그는, 등을 한껏 꼬부리고 무릎을 세운 자세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혹은 늙은 꼬추처럼 보인다. 어쩌면 표면장력으로 동그랗게 오므라든 한 방울의 수은을 연상시켜 그 자체의 중량으로 도르르 미끄러져 내리거나 앉을까 하는 아찔한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창에는 철창이 둘러 있기 때문에 나는 마치 렌즈의 핀을 맞추는 때처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냉정한 눈으로 그를 살필 수 있다.

그의 살갓 밑을 흐르는 혈액 속에는 표면장력이 있어 그는 늘 그렇게 자신의 표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염원으로 잔뜩 웅크린 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미안합니다, 아주 죄송스럽군요, 하는 듯한 웃음을 언제든 필요할 때 즉시 내보낼 수 있도록 입 안쪽 어디쯤에 고여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허공을 정확히 정육각형으로 조각조각 가르고 있는 창살 너머 잔잔히 깔린 비늘구름에 노을빛이 묻어 불그레하게 빛나고 있다. 나는 때때로, 특히 달 밝은 밤 창 바깥쪽에서 잠자리나 초파리의 수많은 겹눈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 거의 유아적인 공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는 여전히 웅크린 채 창틀에 앉아 휘익휘익 휘파람을 불고 있다. 바람 때문에 공기의 진동은 내가 있는 곳에 채 닿기도 전에 소리의 형태를 스러뜨리고 사라져버려 나는 그가 어떠한 곡조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는지 알 수 없다.

- 오정희, 「불의 강」에서 -

- ① ‘나’의 ‘냉정한 눈’을 통해 대상의 객관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나’를 통한 1인칭 서술 방식으로 초점화 대상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건을 압축적으로 요약함으로써 전체 서사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서술이 없이 인물의 외양과 시공간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 ⑤ 작품 속 장면이 ‘그’를 초점화하는 ‘나’의 시선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바뀌고 있다.

2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일반적으로 말은 쉽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글은 쉽게 써내는 사람이 적은가?

거기에 말과 글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말과 글이 같으면서 다른 점은 여러 각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말은 청각에 이해시키는 점, 글은 시각에 이해시키는 점이 다르다. 말은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사라지지만 글은 공간적으로 널리,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오래 남을 수 있는 것도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적이 있다.

먼저, 글은 말처럼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배워야 글자도 알고, 글 쓰는 법도 알게 된다는 점이다. 말은 외국어가 아닌 이상엔 커가면서 거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 배워지고,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아도 날마다 말하는 것이 절로 연습이 된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생활만큼은 별 걱정 없이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글은 배워야 알고, 연습해야 잘 쓸 수 있다.

또 말은 머리로 꼬리도 없이 불쑥 나오는 대로, 한 마디 혹은 한두 마디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전부다. 한두 마디만 불쑥 나오더라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과 표정과 함께 지겨여지기 때문이다. 연설이나 무슨 행사에서 쓰는 말 외에는 앞에 할 말, 뒤에 할 말을 꼭 꾸며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 ① 음성 언어가 청각에 기반하며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는 반면 문자 언어는 시각에 기반하며 기록으로 전승된다.
- ② 말의 형식이 자유로운 것은 말하는 상황과 분위기, 표정과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 ③ 말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울 수 있지만 글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지닌다.
- ④ 글은 문자를 습득하고 글의 형식을 익히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연습을 통해 이를 체화해야만 쓸 수 있다.
- ⑤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에서는 말도 글처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23. <보기>와 관련하여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사람에게서는 외형의 변화와 행동 발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다. 성장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얼굴 길이와 눈썹활 돌출 정도를 조절한다. 사춘기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될수록 눈썹활이 두드러지며 얼굴이 길어진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눈썹활이 더 두드러지고 얼굴이 약간 더 긴 경향이 있어서 이런 얼굴을 ‘남성적’이라고 말한다.

(나)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가 시작되게 하고 적혈구 세포를 생성하는 등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특성은 공격성과의 관계다. 테스토스테론이 사람의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는다. 일부 동물에게서는 그런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다른 호르몬의 상호작용이 공격적 반응을 유발하며, 경쟁 상황에서는 특히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듯 보인다.

(다) 스티브 처칠과 그의 학생 밥 케이리는 20만 년 전에서 9만 년 전 사이인 플라이스토세 중기의 두개골 13점, 3만 8,000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인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두개골 41점을 포함하여 총 1,421점 두개골의 눈썹활 돌출 정도와 얼굴 길이를 분석했다. 양 볼 사이의 거리, 코 상단에서 치아 상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해 얼굴의 너비와 길이를 분석했고 눈에서 눈썹활까지의 높이로 눈 위 뼈가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도 측정했다.

(라) 평균적으로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두개골에서 눈썹활 높이가 이전 두개골에 비해 10% 낮아졌다. 또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얼굴이 플라이스토세 중기보다 10% 더 짧아지고 5% 더 좁아졌다. 다양한 패턴을 띠면서도 변화는 계속되어 현대 수렵채집인과 농경인에 이르자 플라이스토세 후기인들의 얼굴보다도 한층 더 동안인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보 기 >

사람 자기가축화 가설은 자연선택이 공격성이 낮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개체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유연하게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친화력이 높아질수록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 강화되는 발달 패턴을 보이고 관련 호르몬 수치가 높은 개인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 성공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 ① 경쟁 상황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이 높아진다.
- ② 사람 자기가축화 가설을 전제할 때 테스토스테론은 친화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현생 인류이다.
- ③ <보기>에서 언급한 ‘관련 호르몬’이란 (나)의 ‘다른 호르몬’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성공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 ④ 연구자들이 1,421점에 달하는 두개골의 눈썹활 및 얼굴 길이와 폭을 조사한 것은 친화력이 증가하는 인간 진화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⑤ (라)의 ‘동안인 얼굴’은 눈썹활이 낮고 얼굴이 짧고 좁은 여성적인 얼굴을 말하는 것으로 인류의 사회성 발달에 여성호르몬이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24. ~ 문 25.]

사람을 고용해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줄서기의 도덕성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로 줄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경제학자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죠?”라고 묻는다. 입장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경우에도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죠?”라고 묻는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사회 질서나 도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하려는 가격과 판매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일치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대리 줄서기에 관해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주장이다. 첫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다. 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장기 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러한 법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장을 옹호하는 두 번째 주장은 경제학자에게 좀 더 친숙한 것으로 공리주의자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10만 원을 내고 대리로 줄서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유명한 뮤지컬을 관람함으로써 툭툭없이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10만 원을 번 사람도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4.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암표 거래가 성사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지고 효용은 증가한다.
- ② 자유지상주의자는 암표 매매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한다.
- ③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줄서기의 본질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대리 줄서기를 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 ④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하게 된다.
- ⑤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거래는 재화를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25.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의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콘서트나 축구 경기를 가장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입장권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최고 가격을 내고 입장권을 손에 넣은 사람이라도 그 경험의 가치를 전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콘서트나 축구 경기에 대한 열망으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어렵게 입장권을 구한 사람이 그 경험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① 재화의 가치를 재화에 대한 경제적 지불 능력이나 합의된 거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 ② 재화의 가치는 자유 시장 체제의 수요와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③ 재화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재화를 공급하는 판매자의 이익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④ 재화의 가치를 판단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행복해지고 경제적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⑤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재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성향, 거래 경험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에 의하여 정해진다.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습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헌법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 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ㄹ.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ㅁ. 합당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신설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 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은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여 국민으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한 악의적 면탈을 방지하고 국가공동체 운영의 기본원리를 지키고자 적어도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게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
-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국적법」 제12조제3항은 출입국 등 거주·이전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에 관련하여 그 출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④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병역 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⑤ 국적회복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었든 상관없이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3.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1948년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 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부통령을 두지 않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가미하였다.

ㄴ.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 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규정하였다.

ㄷ.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ㅁ.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신설하였으며, 헌법에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규정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4.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2 제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물 분야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③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가운데 제451조제1항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감염병환자가 방문한 영업장의 폐쇄 등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⑤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 「병역법」 제3조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제41조제4호 및 단서, 제42조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ㄴ.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유기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이고,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 ㄷ. 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광업법」 조항은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ㅁ. 「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ㅁ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연장근로 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② 중개법인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⑤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위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⑤ 재판부는 결정으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이란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중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 ③ 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시간적,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④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비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의 체계, 소송 대상물의 성격, 분쟁의 일회적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성할 정책적 문제이다.
- ⑤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제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 ③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한다.
- ④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 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0.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②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③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민사법정에 출정하는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축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축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그 등록을 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호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중 제49조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제72조제1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동법 개정 시점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1호는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13.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지방공사 직원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제2호, 제3호나목 및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헌법 제33조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 ⑤ 헌법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 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② 헌법은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 ③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1호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신성적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15. 법원의 심급제도와 「법원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선인을 포함한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지만,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마. 헌법상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나, 마
- ③ 가, 다, 라
- ④ 나, 라, 마
- ⑤ 다, 라, 마

1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중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는 감리업자 이외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②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 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문화재수리업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7.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②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중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 및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항 중 제33조제2항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제108조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기간 중인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국회법」 제5조의3제1항은 정부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국회법」 제3조는 국회의원의 의석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 「국회법」 제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송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② 헌법 해석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검열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⑤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④ 여러 개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에게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 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1.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④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2.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제11호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23.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 ④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룰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4.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 ②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③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 ④ 헌법 제35조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이므로, 여기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 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ㄴ. 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가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 ㄷ.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ㅁ.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ㅁ
- ⑤ ㄱ, ㄴ, ㄷ, ㅁ

경 제 학

1. 어떤 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화재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하고 있을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금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30%이다.
○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는 10억 원이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상 손실은 10억 원 전부이다.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상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총 3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이 소비자가 위험기피적이라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② 이 소비자가 위험중립적이라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③ 이 소비자가 위험선호적이라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④ 이 소비자가 위험기피적이라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의 효용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기대효용보다 크다.
⑤ 이 보험은 공정한 보험이 아니다.

2. X재의 수요곡선은 $Q=10-P$ 이고 공급곡선은 $Q=-2+P$ 이다. X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정부가 가격하한제 실시 또는 보조금 지급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이다)

- ㄱ. 정책 실시 전 기업의 매출액은 24이다.
ㄴ. $P=8$ 인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면 기업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ㄷ. 소비자에게 X재 한 단위당 1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업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ㄹ. 위의 ㄴ정책과 ㄷ정책이 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는 같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두 정상재 X 와 Y 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효용 함수는 $U(X, Y)=3XY^2$ 이다. X 재의 가격은 10이고 Y 재의 가격은 5이며, 소비자 A의 소득은 90이다.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자 A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X 재와 Y 재의 소비량의 합으로 옳은 것은?

- ① 15
② 16
③ 17
④ 18
⑤ 19

4. X 재의 수요함수가 $Q=200-4P$ 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이다)

- ㄱ. X 재의 가격이 10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0.25이다.
ㄴ. X 재의 가격이 10에서 11로 오르면 X 재에 대한 소비자 지출은 늘어나고 수요량은 줄어든다.
ㄷ. X 재의 가격이 50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ㄹ. X 재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5. 노동만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수요독점기업이 직면한 노동공급 곡선이 $W=20+L$ 이고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은 $MRP_L=100-2L$ 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W 는 단위임금, L 은 고용량이다)

- ㄱ.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20+2L$ 이다.
ㄴ.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고용량은 20이다.
ㄷ. 수요독점기업이 지급하려는 임금은 60이다.
ㄹ. 정부가 최저임금을 50으로 설정하면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이전보다 고용량이 늘어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min(x, y)$ 일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격소비곡선은 우상향한다.
- ② 소득소비곡선은 수평선이다.
- ③ 두 재화 중 적게 소비하는 재화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효용수준이 증가한다.
- ④ 무차별곡선의 수평선 부분에서 한계대체율은 0이고, 수직선 부분에서 한계대체율은 무한대이다.
- ⑤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1차동차 함수의 형태를 띤다.

7. 완전경쟁 상태에 있는 X재의 수요곡선이 $P=75-3Q$ 이고 공급곡선이 $P=25+2Q$ 이다. X재를 생산하는 기업 A의 장기 비용함수는 $C(Q)=25Q+5Q^2$ 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 ① 2
- ② 5
- ③ 10
- ④ 45
- ⑤ 125

8.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 보 기 >

ㄱ.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임금이 1% 변화할 때 노동공급이 몇 % 변화하는지를 측정한다.
 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backward bending)하는 구간에서는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음의 값을 갖는다.
 ㄷ. 임금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ㄹ. 시간당 임금이 10일 때 1,900시간을 일하던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이 20으로 올라 2,090시간 일했다고 하면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0.1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9. A국의 인구 100명 중 절반은 전혀 소득이 없고 나머지 절반은 소득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 A국의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로 옳은 것은?

	지니계수	10분위분배율
①	0.25	0
②	0.25	1
③	0.50	0
④	0.50	1
⑤	0.50	2

10. X재의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 2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X재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

< 보 기 >

ㄱ. X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ㄴ. X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소비자의 총지출이 감소한다.
 ㄷ. X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자의 총수입이 증가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1. 다음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갖는 게임에 대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각 용의자의 전략은 부인과 자백이며, 괄호 안의 첫 번째 보수는 초범 용의자의 형량을, 두 번째 보수는 재범 용의자의 형량을 나타낸다)

		용의자2 (재범)	
		부인	자백
용의자1 (초범)	부인	(1년, 1년)	(4년, 3년)
	자백	(2년, 5년)	(2년, 3년)

————— < 보 기 > —————

ㄱ. 담합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ㄴ. 다수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ㄷ.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ㄹ. 일회성 게임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보장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완전경쟁시장의 단기 비용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단기총비용곡선은 단기총생산물곡선과 쌍대관계에 있다.
ㄴ. 평균총비용곡선은 U자 모양을 가지며 처음에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이 감소하고 나중에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한다.
ㄷ. 손익분기점은 평균총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ㄹ.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ㅁ. 공급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부터 우상향하는 한계비용곡선이다.

-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3. 일반균형이론 관점에서 에지워스상자(Edgeworth bo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지워스상자 안의 모든 점은 실현가능한 배분이다.
② 직각쌍곡선 형태를 띠는 두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③ 일반경쟁균형에서 생산자(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 함수를 따른다)의 두 상품 생산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일치한다.
④ 일반경쟁균형에서 소비자의 두 상품 간 한계대체율과 시장가격비율, 생산자의 두 상품 간 한계생산변화율이 모두 일치한다.
⑤ 두 등량곡선이 접하는 모든 점에서 상품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14. 채권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채권에 대한 수요는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려고 하는 경제 주체에 의해 결정된다.
ㄴ. 통상적으로 장기채의 금리는 단기채의 금리보다 낮다.
ㄷ. 채권가격의 하락은 채권이자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ㄹ. 예상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채권의 수요곡선은 좌측,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고용 관련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ㄱ.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ㄴ.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ㄷ. 실업자의 일부가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면 고용률은 증가한다.
ㄹ.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통계만 있으면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16. 중앙은행이 테일러(Taylor) 준칙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는 목표 또는 장기균형수준을 나타낸다)

테일러 준칙: $r-r^*=m(\pi-\pi^*)+n(Y-Y^*)$
 r =기준금리, π =인플레이션율, Y =산출량

- < 보 기 >
- ㄱ. $m > 0$ 이고 $n = 0$ 이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낮을수록 m 과 n 이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게 된다.
 - ㄷ.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n > 0$ 이면, 중앙은행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 ㄹ. $m > 0$, $n > 0$ 이고 m 과 n 이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는 재량적 정책이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7. A국의 X재 국내 수요곡선은 $Q=120-P$, 국내 공급곡선은 $Q=P$ 이다. X재의 국제 가격은 $P=20$ 에서 거래되고 있다. 소국인 A국 정부가 X재의 수입을 결정하여 수입량이 20이 되도록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때, X재 수입 1단위당 부과해야 하는 관세는?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이며 국제 가격은 일정하고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⑤ 30

18.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A국의 생산함수는 $Y=20\sqrt{LK}$, 저축률은 40%, 자본감가상각률은 연 4%, 인구증가율은 연 2%이고 2024년 초 A국의 1인당 자본량은 900이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L 은 노동, K 는 자본이며 기술진보는 없다)

- ① 2024년 초 A국의 1인당 산출량은 900이다.
- ② 2024년 초 A국의 1인당 산출량은 1,800이다.
- ③ 2024년 A국의 연간 1인당 자본의 증가량은 126이다.
- ④ 2024년 A국의 연간 1인당 자본의 증가량은 168이다.
- ⑤ 2024년 A국의 연간 1인당 자본의 증가량은 186이다.

19.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셔(I. Fisher)의 거래수량설에 따르면,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으며 판매된 재화의 가치와 화폐수취액과의 관계는 불확실하다.
- ② 프리드먼(M. Friedman)의 신화폐수량설에 따르면, 개인 화폐수요는 미시적 자산선택의 결과로 개인의 평생 부와 화폐를 포함한 여러 자산 수익률의 함수로 결정된다.
- ③ 케인즈(J.M. Keynes)의 유동성선호설에 따르면,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과 양(+)의 관계가 있고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과 음(-)의 관계가 있다.
- ④ 보몰(W. Baumol)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거래적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 ⑤ 토빈(J. Tobin)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 상승 시 소득효과는 화폐수요를 감소시킨다.

20.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 보 기 >
- ㄱ.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ㄴ. 구축효과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 ㄷ. 구축효과는 IS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작아진다.
 - ㄹ. 구축효과는 LM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커진다.
 - ㅁ.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1.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이루어진 다음 2-부문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재화(goods) 생산함수: $Y_t = A_t L_{yt}$

○ 아이디어(idea) 생산함수: $\Delta A_{t+1} = \eta A_t L_{at} \ (\eta > 0)$

○ 총노동투입량: $L_{yt} + L_{at} = \bar{L}$

$L_{at} = \ell \bar{L}$: 아이디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 ($0 < \ell < 1$)

L_{yt} : 재화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

ΔA_t : 아이디어 스톡의 변화

22. 정책무력성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주체들이 변동하는 물가를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상쇄되어 평균적으로는 예측오차가 0이 된다.

② 시장에 참여하는 독과점기업들이 차림표비용(menu cost)으로 인해 가격을 신중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확대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③ 시장에 참여하는 독과점기업들이 노동자들과 장기임금계약을 체결 한다면 확대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④ 확대 통화정책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이상으로 물가를 올리는 깜짝 정책이라면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⑤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완전신축적이라면 정책무력성 정리가 성립할 수 있다.

23. 통화승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ㄱ. 통화승수란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을 말하며, 화폐 승수라고도 한다.

ㄴ. 통화승수는 현금예금비율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ㄷ.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면 통화승수는 커진다.

ㄹ.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ㅁ. 화폐의 유통속도가 상승하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24. 개방경제하에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하며 자본의 완전이동을 가정한다)

- < 보 기 >
- ㄱ. 고정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이 확대 재정정책에 비해 생산증가효과가 크다.

ㄴ. 고정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상승의 압력이 발생한다.

ㄷ.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이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환율이 상승하고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ㄹ.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ㅁ.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이 확대 재정정책에 비해 생산증가효과가 크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25. 미국의 1달러는 우리나라 1,300원과 교환되고, 사과 하나당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 미국에서는 2달러일 때,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환율로 옳은 것은?

- ① 1,300
- ② 1,000
- ③ 1.3
- ④ 1.0
- ⑤ $\frac{1}{1.3}$